

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관계부처회의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경찰청 차관·실장급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금감원 등과 함께 외국 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위위를 통해 차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자보다 투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가상자산 투자를 방지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칼럼] 제2의 4·19혁명 현재 진행형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0년 4월 19일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4·19혁명은 지금의 미얀마 사태나 과거의 광주 민주화운동처럼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에서 비롯됐다.

처음 시작된 대구에서 서울·대전·수원·부산·마산으로 번지면서 사태는 점점 악화일로로 확산했으며 그 원인은 정권의 부패였다.

사실 정권이 부패하거나 말거나 먹고 살만하면 그냥저냥 넘어갈 일이지만 쥐도 몰리던 고양이들 무다 했던가. 먹고 살기 팍팍해지고 배고픈데 관료들의 아가리에 생선 비린내가 나고 배때기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니 약이 바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이라고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을까. 문명의 발달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더라도 당시의 법이 지금의 통신 요금보다 중요한 것이며 입고 자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기와 수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휴대폰 끊기고 단전·단수되는 가구가 늘어날 때 민중들의 봉기가 자연스레 일어나는 것이며 근근이라도 먹고 살 수 있다면 버틸 텐데 과연 재난지원금을 몇 차까지 지급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작언하면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며 임시방편으로 언제까지 입막음을 할지 대략 난감하다. 얼핏 보면 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부추기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한다고 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 펴포질 한다는 오해는 안 받을 것 같다.

다만 참다 안 되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는 할 수 있는 게 언론의 예고이자 일이 터지기 전에 막으려는 정부에 대한 경고가 아니겠는가. 부패도 시기와 방법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위가 다르겠지만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일 때는 더욱 위축된다. 과거의 부패는 수위가 있었다. 가령 부정선거를 저질러 권력을 잡는거나 잡은 권력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불공평한 행태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자 뭐가 다를까. 잘해 보겠다고 거짓말로 공약해도 관직을 선거문화, 도시발전에 따라 당연히 될 일을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지어주어 겁대거리 없이 홍보하는 배짱. 무슨 짓을 해도 공전만 받으면 다시 찍어줄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믿음, 어이없게 그런 판단들이 맞아떨어지는 현실, 장관자리 또한 동네 친구들 떡 나눠 먹듯 너도나도 자리 차고 앉아 설치대도 막히는 정무직들의 오만함, 이것이 대한민국 현주소라면 제2의 4·19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무엇 혁명이든 민중봉기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면 누군가의 희생과 뚜렷한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한 번씩 터질 때 마다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나 쉽게 그러한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그런 봉기보다 첨단 과학 시대에 걸맞게 정권 스스로가 판단해서 같은 일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인은 정치만 하고 행정가는 행정만 해야 하며 국민은 국민답게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평범한 진리가 지켜지지 않고 남의 영역을 넘보며 꺾겨가다 보니 지금처럼 엉망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성토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하기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하기로 한다.

출발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국가발전에 앞서기 때문이며 대표적인 예로 표심만 얻을 수 있다면 분야와 범위를 가리지 않는 정적이다. 여성은 여성답게 결혼의 환상을 가져야 하고 자녀의 출산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행복하게 오순도순 가정을 꾸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부양의 너넬함을 충족시켜야 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한다면 누구나 민생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두 가지만 해도 우리 민족의 장래는 밝아질 것인데 슬데없이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 낭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시정불만 울릴 수 있다면 말쑥히 잘 살던 사무모와 부부 사이에 불만을 부추겨 이혼율을 높이는가 하면 화려진 가정의 자녀들이 밝게 웃음을 헤매는 사회적 붕괴를 자초하는 경우와 같다.

널고 먹어도 되는 세상, 복지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계몽하게 하고 꺾기하면 명분만 있고 실리는 없는 정책을 마련하여 서로 고발하는 민민갈등을 조래한 게 한 두 번인가.

이제 정당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소신을 가질 수 없고 국민이 아저씨 같은 말든 권력을 잡아야 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없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남성은 돈을 벌 환경이 없으며 군대의 군기와 예절은 위아래 없이 누너지는 나라에서 더 이상 될 기대할 것인가. 경제와 건강과 예절과 민족의 근간이 흔들리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대안을 제시 한다. 먼저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권력과 언론이 주문하는 대로 생각 없이 휘둘릴 게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곧 출범할 공직자 신뢰회 복 운동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한다. 추후 모든 진행과정을 공개하겠지만 박봉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성실한 공직자가 있음을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짐을 알릴 계획이다.

공직자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부정한 정치인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두려워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마평부터 대권 주자를 만들어 가는 언론의 복소리에 귀 막고 정계의 실례발에 눈감고 신중하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대장정에 동참해야 한다. 적어도 지금 같이 권력의 주자만 바린 채 국민의 불행이 반복되는 나라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

덕암/김근식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 질책을 쓴 악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방역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 면역까지 난관이 많다"며 "경제는 고용상황이 나아지며 회복기로 돌아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선거로 단체장이 바뀌지자제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달라"며 "특히 아슬아슬한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며 "정부는 기업과 소통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평가는 어제와 별 다를 게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추어져 있다"며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홍 총리대행 "투기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 무관용 일벌백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 "최대한 수사속도를 높여 단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우고 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무관용의 일벌백계가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억축 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모든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또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초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3월 말에는 이를 156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당초 제기된 공직자들의 신고도 관련 투기억축 뿐만 아니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 총리대행은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에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하고 6명은 구속했다"며 "또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해 약 2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이번의 경우 검경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하나의 팀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적극적인 국민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 및 검찰은 수사상황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수시로, 소상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 총리대행은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부패·불공정을 완전히 청산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부동산 투기범죄의 발발색 원 및 일벌백계,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시행 등 두가지 갈래의 약속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경제부총리로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 이어 21일 열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추가적인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정동희기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국가핵심
융복합단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강소연구
개발특구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혜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 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

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의견제출 제도는 과태료 부과처분 전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필수적 행정절차인데, 행정절차 생략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자진 납부 감경 제도와는 그 취지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또, 심의를 주관하는 심의기관과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각 행정청마다 모두 상이하고, 제출된 의견을 당사자에게 회신하는 업무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앞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부와 지역별 형평성 없는 과태료 행정집행 △행정절차상 의견제출제도의 실효성 저해 △자진 납부한 과태료에 대한 반환 절차 불명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해석 지침과 법령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는 해석 지침의 보완만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을 새로 개정·발간하였으나, 해석 지침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어 실제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개정 후에도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감경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의견 제출기한이 지나도 자진납부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의를 제기하

더라도 의견심의 기간에 상관없이 회신 후에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의견 제출과 자진 납부 제도의 이점을 함께 살리고, 불가피하거나 억울한 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법·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에 최대한 많은 국민이 이로 인한 혜택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상충하는 제도 등의 개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광수/기자

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음주측정을 피해 도주 시 처벌 강화된다

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 근절해야”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한 A차량이 마주오던 B차량을 정면 충돌해 B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이 다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규정은 있지만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 중 도주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하는 사람을 현행법으로 잡기 위해 단속 경찰관이 추

격하여 체포하는 등의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제148조의2제2항을 개정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사람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제5조의11제3항을 신설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해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한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져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와 함께 음주운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차량으로 인해 경찰과 무고한 국민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의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음주운전 도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중처벌적 성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음주측정이 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양기대 국회의원 “청년정책, 현실에 맞게 대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청년정책, 현실에 맞게 대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은 청년 세대의 일리와 자주거정책, 개인화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지난 17일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 10여명이 참석해 자신들의 고충과 불만 그리고 각종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먼저 사업을 하는 참석자 A씨는 현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이 좀 더 현실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A씨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얼마씩 저축을 지원해 3년 뒤 1천여 만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만 3년 뒤의 물가, 부동산가격 등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축이라는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청년저축과 청년대출, 월세지원, 청년우대대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2030세대의 개인화 경향으로 청년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들이 잘 유통되지 않고 있다며 그 해법으로 청년들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참석자 B씨는 “작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학교에 간 일수가 딱 3일이며 온라인 수업만 받다가 휴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자리나 중장기 일자리(6개월 이상)를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대학졸업 후 취업을 준비중인 참석자 C씨는 기업에서 경력자를 우대선발하여 경력 없는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이 힘들다며 취업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

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연계를 통해 대기업에 고졸취업을 한 참석자 D씨는 “막상 취업해보니, 기업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취업한 20명중 1명만 남고 1년 반만에 모두 기업을 나왔다”고 절망감을 표시했다. 그는 고졸 취업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시켜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기대 의원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등 삶이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의 청년정책을 다시 검토해 새롭게 청년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순희/기자



서범수의원, 코로나 방역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를 기록,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발의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대중이용 시설에서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수집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가게 홍보나 상업적 이용을 막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를 기록·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최근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집한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홍보 등에 이용되거나 판매되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최근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 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심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성작용을 이용한

광합성바이오매스발전소(추진)

비화산지역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개소, 19일부터 본격 운영 돌입!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분원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19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도 북부지역 도민의 행정적 편의 극대화와 의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추진한 북부분원이 개소함에 따라 현장중심 의정활동 활성화는 물론, 경기 남·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1층에서 '북부분원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을 비롯해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온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과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청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이재강 평화부지사, 경기도교육청 조도연 제2부교육감, 김민철 국회의원, 위원회 위원인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자리를 함께했다. 장현국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가 남부에만 소재해 있었으면서 북부지역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이 컸다"며 "오늘 북부분원 개소가 북부지역 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굴해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은 "북부분원 설치로 의원들의 회의와 업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돼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북부지역 공무원의 업무효율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관 5층에 자리한 북부분원은 상임위원회 공용회의실(501호)과 공동집무공간(502호) 등 각각 110㎡(33평) 규모의 2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공용회의실에서는 업무보

고와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가사, 회의 등이 진행되며 공동집무공간은 의원 집무실과 접견실로 활용될 계획이다. 회의실 사용은 13개 상임위별로 이용신청을 받아 이뤄지며, 상임위 소관 북부청 실·국 및 북부소재 공공기관이 많은 건설교통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순으로 우선 배정된다. 경기도의회는 단기적으로 북부분원 전담인력을 두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1개 과 3개 팀 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확대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수원 본원에 집중됐던 의정활동이 의정부 소재 북부분원으로 분담됨에 따라 의정

충남도의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19일 성명 발표...방류 결정 철회, 오염수 정보 투명 공개 요구

충남도의회는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기준치 아래로 낮추어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나와 있지 않다"며 "설비를 통해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의 경우 희석하면 농도는 떨어질지 모르나 오염물질 총량은 동일하기에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가 이어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정화/기자



최근수/기자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전심사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제359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회의를 열고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와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이용자의 의무사항 준수 및 이용관련 제반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와 '수원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 예방시설 설치 기준, 화재 예방시설 관리, 화재 예방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부 조항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됐다. '수원시 한해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따른 한해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개관한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 및 운영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시에서 제출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안전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봉화군의의회, 정책개발로 한단계 발전하다

의원정책개발단체를 통한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유치에 힘써

봉화군의의회에서는 새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봉화군의의회 정책개발단체를 통한 지역 발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화군의의회는 김제일, 조병두 의원이 지난 4월 13일 국회를 방문하여, 박형수 국회의원, 산림청 이기라 산림산업정책국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020년 10월 의원정책개발단체인 봉화산림기관연구포럼을 통해 추진한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유치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제일, 조병두 의원은 "봉화국유림관리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봉화군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연구 등을 통하여 봉화군 발전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전체 산림면적

98,054ha 중 51,695ha이 국유림으로 군 산림면적의 5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더불어 청옥산 자연휴양림, 춘양 양묘사업소, 문화재 수리 재료센터 건립 등 산림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한반식/기자



울진군의의회 이세진의의장 징계의 건 임시회 상정

울진군의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월 16일 울진군의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세진의의장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246회 울진군의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3월 24일 제245회 울진군의의회 임시회에서 이세진의의장의 구속에 대하여 대군민 사과문 성명을

발표하였고, 지방자치법과 울진군의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내지 제87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3.24)를 진행하였고 제6차 회의(4.16)까지 진행하였다. 의원직의 제명 여부는 오는 4월 19일부터 개최하는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적의원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

결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정희 부의장은 "의장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김세기/기자

시흥시의의회 박춘호 의장, '세월호 7주기' 맞아 시민영웅 박지영씨 추모식 참석

시흥시의의회 박춘호 의장이 16일 시흥고등학교 내 지영공원에서 열린 시민영웅 박지영씨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은 세월호 7주기를 맞아 사고 당시 세월호에 마지막까지 남아 구조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5월 의사자로 지정된 故박지영씨를 기리고자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춘호 의장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고등학교 교장이 함께해 추모비에 헌화하며 박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모식이 진행된 지영공원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박씨를 기억하

고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5년 시흥시가 박씨의 묘교인 시흥고에 그의 이름을 따서 조성한 공원이다. 당시 박씨는 선장이 재선(在船)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탈출해버린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건네며 구조 활동에 전력을 다했다. 박춘호 의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영웅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시민들이 의사자 박지영씨를 기억하고,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동해시의의회 의원연구단체,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 착수

동해시의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통시장 연구회'가 지난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단체 소속 임응택·김기하·박남순·최석찬·이정학 의원을 비롯해 김선균 동해시연합번영회장과 이해중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동해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전통시장인 동쪽바다 중앙시장

과 북평민속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여건 분석, 상인 및 방문객 요구 조사, 법·제도적 개선방안,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명소화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회장인 임응택 의원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장별 맞춤형 대책을 연구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서울특별시, 미세먼지·교통사고 동시 예방 '녹색통학로' 올해 4개소 조성

미세먼지와 교통사고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2018년부터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녹화활동 지속 추진

서울특별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통학로 주변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기 위해, 2018년 「학교 통학로 녹화사업」을 시범으로 시작하여 올해에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10개 통학로를 완료하여 '미세먼지 및 기온 저감 효과,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통학로 제공'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기업과 정부 부처의 통학로 녹화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초록빛 꿈꾸는 통학로 프로젝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통학로 녹화사업으로 지난 2019년 1월 22일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업무협약으로 서울시는 행정업무 총괄 지원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재원 지원을, (재)한국사회투자사는 사업 실행·관리를 담당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통학로 2개소(2.0km)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나무 2만1천여 주,

초화류 1만4천여 본을 심어 녹색길을 조성했다.

올해 대상지는 서울세문초등학교·보성중학교·보성고등학교(송파구) 통학로 일대(약 0.4km)로, 학교 사업동과의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선정심사회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3억 원을 투입해 오는 5월말까지 가로변 피녹지와 벽면 녹화를 통해 녹색 통학로를 조성하고, 통학로를 따라 가드닝 공간을 도입하는 등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교가는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은 2021년부터 산림청에서 서울시의 「학교 통학로 녹화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전국으로 확대한 사업이다.

올해 대상지는 서울갈산초등학교(양천구), 서울양원초등학교(양천구), 서울오류초등학교(구로구) 통학로(1.3km)이며, 2020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자치구 중 서울시·산림청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6억 원(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을 투입해 6월말까지



가로수 아래 중간키 나무 식재 및 하층 식재 보완으로 풍성한 녹지를 조성하고, 진출입부 및 횡단보도 주변 차량 안전을 고려하여 배식할 예정이다. 최윤중 푸른도시국장은 "3년 동안 학교 통학로 녹화사업"에 참여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감사사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새 모습으로 탈바꿈

가산디지털단지역 신축사 조감도 공개, 2023년 준공 예정

경부선(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사가 새로 태어난다.

금천구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의 전면적인 노후역사 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1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은 가산디지털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오전 5~10시) 지하철(1~9호선과 분당선) 역 중 가장 많은 사람이 하차하는 역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74년 건축 이후 47년이 경과한 탓에 건물에 균열, 누수, 도색분리가 발생하는 등 노후된 시설이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며, 높은 유지관리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가산디지털단지역의 신축을 결정하고,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설계(안)를 확정했다.

총사업비는 340여억 원으로 국토교통부가 40%, 한국철도공사가 60%를 부담한다.

건축방법은 먼저 선상역사 1개동을 기존 역사 옆에 신축하고, 이후 기존역사를 철거한 자리에 추가 신축해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승객서비스공간도 확대된다.

출입구도 지상역사를 경유하지 않고 승강장에서 바로 지상으로 연결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신축역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최근 국토부의 3080+ 주택공급방안 선도 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가산동이 선정된 것과 더불어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신축되면 가산동 주거환경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금천구민의 생활여건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성동구, 지역 대학 연계해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으로 친절마인드 향상

지역 내 한양여자대학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행정의 상호협력 동반자로 여겨

서울 성동구 사근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달 1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대학인 한양여자대학교의 항공과 수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우울 증 등으로 동 주민센터 방문객들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언성을 높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 이런 민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직원 대처가 필요했다.

또한, 방역, 예방접종, 보편선거 사무 등 산적한 현안 업무로 직원들에게 쌓인 업무 피로도가 자칫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의 조치도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 내 대학을 품고 있다는 이점을 살려, 학계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품질 높은 항공서비스 인재를 양성하는 항공과 교수를 초빙하여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직관적이면서 핵심을 관통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날 강의를 맡아준 장희숙 교수(한양여자대학교 항공과)는 외모를 가꿔라(고객과 대면하는 노하우), 내가 먼저! 눈맞춤! 밝게! 말하기 등을 주제로 참석 직원들의 옷차림 방향을 제안하고, 실제 서비스업계에서 일어나는 사례와 접목한 강의를 펼쳐 교육참여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의 친절교육이 실제와는 동떨어진 이론에 바탕을 둔 강의를 위한 강의였던 점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정희 사근동장은 "많은 구민들이 코로나 19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이렇듯 매일 수속 '공무원의 친절이 곧 구민의 행복'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민원 행정 전국 1등 성동'의 이미지를 제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구, 한눈에 강동, 스마트 통합 플랫폼 본격 가동

강동구, 주요 행정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 통합 플랫폼 구축

강동구는 분산되어 있는 구정 데이터를 연계해 도시 내·외부의 각종 정보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한눈에 강동, 스마트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한눈에 강동'은 강동구청 3층 구청장 집무실에 설치된 가로 3.7m, 세로 1.5m의 대형 멀티스크린으로 CCTV, 교통정보, 소방서, 기상청 등 다수의 행정정보를 총 망라한 스마트 통합 플랫폼이다.

화면을 터치하면 해당 메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강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메인화면에는 ▲실시간 도시현황 ▲생활지도 ▲구정현황 ▲공약 및 주요사업 ▲여론동향 등 7개의 메뉴를 구성해 있다.

특히 '실시간 도시현황'은 코로나 19 상황판, 재난, 교통, 대기환경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연계해 화재, 구조, 방역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을 연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구정현황'에는 60여개의 구정지표를 계량화한 수치와 시각화된 차트로 확인가능하며 '공약 및 주요사업'에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사업별 진행현황, 이행을 및 주요 역점사업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구민과

의 약속이행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스마트 통합 플랫폼에 태양광모니터링시스템을 연계해 관내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재정시스템, 세무종합 및 세외수입시스템과 연계하여 구 재정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무엇보다 구축된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창구를 마련해 전 직원이 구정 목표와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스마트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실현에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계 가능한 내·외부 모든 시스템을 자동 연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축적·관리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종로구, 한복 토크콘서트 및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 성료



종로구는 2021 봄 한복문화주간(4.9.~4.18.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을 맞아 한복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호응을 얻었다.

먼저 14일 무계원에서 한복의 세계화와 더불어 일상 속 한복 입는 문화의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종로 한복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전통한복 디자이너 김영미 원장, 전주한옥마을 '한복데이'를 기획한 박세상 대표, 무형문화재 가야곡 산조 전수자인 조세린(Jocelyn)배제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 이날 패널로 함께한 가수 전효성은 지난 3.1절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 광고 프로젝트로 호평 받은 일에 대해 "한국인으로 한복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젊은 세대가 한복 입기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로 한복 토크콘서트는 4월 중 종로TV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에서는 18일(일)까지 '한복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를 진행했다. 자칫 버려질 뻔한 한복을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재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중 구청장은 "한복을 입는 걸 넘어 한복을 입고 무엇을 하느냐까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한복문화 확산을 위해 한문화 1번지 종로가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전했다.

송파구 문정비즈밸리 미니인턴 '송사원'의 미션은?

송파구가 청년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실전 직무체험! 미니인턴 2주간 '송사원'으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6월까지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과 경력직 인재를 선호하는 중소기업 여건,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구직자의 상황이 맞물려 서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송파구가 기업과 구직자를 잇는 인재매칭 솔루션을 마련해 청년 취업난 해소에 나선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현안 과제를 받은 구직자는 2주간 과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실적을 보였으면 면접과 채용 연계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 구직자는 온라인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참여 기업은 검증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참여 구직자 모집 및 선발, 미니인턴 사전 교육 ▲2주간 과제 수행 및 제출 ▲서류자 선발 및 면접자 발표 ▲채용연계 및 불합격자 타기업 일자리 알선 등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참여 기업은 문정비즈밸리에 위치한 ㈜라비베르와 ㈜더진, 방이동에 위치한 한미헬스케어(주) 3곳이다. 각 기업 별로 SNS콘텐츠기획, 디자인, 마케팅 분야 15명 내외 인원을 선발해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각 기업 별로 4월부터 6월까지 일련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현재 ㈜라비베르와 함께할 SNS콘텐츠기획 분야의 취업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나 미니인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본 사업이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면서,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거점으로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일자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파구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는 '기업 인터뷰'를 통해 센터 홈페이지 내 입주기업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구인기업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에니어그램 성격심리·직업심리 검사,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및 모의면접, AI VR 면접체험 등 단계별 일자리 서비스 잡(JOB)트니스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다. 운영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로,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정동희기자

송파구 문정비즈밸리 미니인턴 2주간 송사원으로 살아보기 (0% 13(주) ~0% 27(목))

1. 모집내용

- 기간: 2021.04.21(수) ~ 2021.04.27(목)
- 인원: 2021.04.28(일) 현재 개발 중
- 지원: 2021.04.28(일) 현재 개발 중
- 문의: 02-2611-1111



서대문구 2021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 연다

위기 사회를 지키는 여성들, 변화를 이루는 여성리더십 등 주제로 강연

서대문구가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2021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인권을 선언했던 '여권통문의 날'에 대해 알아보고, 근대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을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리더십과 성장에 대해 살펴본다.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여권통문의 날에 살펴보는 근대 여성(5/4) ▲코로나19 시대, 위기 사회를 지키는 여성들(5/11) ▲변화를 이루는 여성리더십(5/18) 등 총 3회의 강의를 각각 당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으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가 주관하며 강의별로 선착순 100명씩 참가자를 모집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이달 30일까지 인터넷(<https://forms.gle/j7GPgNWbN6Hmnaws5>)이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조상순기자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서대문

2021년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

1강 여권통문의 날에 살펴보는 근대여성
5.4.(화) 15:00~17:00
여행이아기 박광원

2강 코로나19시대, 위기의 사회를 지키는 여성들
5.11.(화) 15:00~17: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3강 변화를 이루는 여성리더십
5.18.(화) 15:00~17:00
센터리더십 김일희

▶ 접수기간 2021. 4. 19.(월) ~ 4. 30.(금)
▶ 신청대상 서대문구민 누구나
▶ 모집인원 강좌별 선착순 100명 이내
▶ 교육방법 실시간 온라인(ZOOM) 강연
* 교육 전담 강의를 참석 완료 및 강의실 입장 ID 발송
▶ 주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 주최 서대문구

▶ 신청방법
▶ 구글 링크신청 <https://forms.gle/j7GPgNWbN6Hmnaws5>
▶ 이메일 신청 20090221579@sdm.go.kr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전화 신청 02-330-1388

남동구 월동 학생안전체험관 부설주차장, 지역 주차난 해소 기대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시설 개방도 속도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월동 학생안전체험관 지하에 21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체험관 부설(공영)주차장은 구월동 옛 만월초교 부지 내 학생안전체험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73여억 원을 들여 추진됐다.

부설주차장은 지상 76면, 지하 142면 등 모두 218면 규모로, 앞으로 20년간 24시간 주민 개방 목적의 준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된다.

지상 주차장은 안전체험관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하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돼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말 설치되는 남동구 예방접종센터(옛 길병원 어린이병원)의 접종자 주차장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학생안전을 위한 체험관과 더불어 지역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주차장을 조성하게 돼 더 의미가 있다"며 "월도심 주민들의 고통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달 간석초등학교와 상인천중학교와 협약을 통해 진행 중인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예산 6억 원을 제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협약 내용에 따라 간석초 22면, 상인천중 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구는 그동안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준비해 왔으며, 예산 확보에 따라 설계 진행 후 방학기간

에 공사해 9월 개방할 예정이다.

구는 학생 안전 및 보안 등을 위해 개방 주차장의 진·출입구를 별도 분리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한다.

또 주차장 개방시간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전일 개방한다. 단, 개방시간 이후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변재현기자

강화군, 순무 연중 이용 작부체계 구축에 나선다

"봄에 새싹을 먹고, 여름에는 잎을 먹고, 가을에는 줄기를 먹고, 겨울에는 뿌리를 먹는다" 이런 채소 들어보셨나요?

강화군이 순무 뿌리를 이용하는 재배형태에서 벗어나 잎(순무청)과 줄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작부 체계를 구축한다.

군은 높은 이용성을 지닌 강화 순무를 재평가(탐색 및 특성조사)해 잎·줄기도 함께 활용하는 작부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봄 작기 예비시험(3월 31일 파종)과 가을 작기 분시험(8월 중·하순)을 진행 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교배 온실(165㎡), 준화처리실, 종자보관실, 실증시험포 등 관련 시설을 갖추고 맛이 좋고 재배가 용이한 순무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GH만청(일명 반백이)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였고, 올해

2년 차 재배시험을 앞두고 있다.

또한, 순무를 재배하는 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순무 뿌리혹병을 억제하는 품종도 개발 중에 있다.

순무(뿌리)는 칼륨과 비타민C, 칼슘, 철분, 식이섬유, 마그네슘 등 무기질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며, 순무의 잎과 줄기(순무청)에도 각종 비타민(A, C, K)과 엽산, 철분, 폴린인 다량 함유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좋은 식재료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봄에는 새싹을 먹고 여름에는 잎을 먹으며, 가을에는 줄기를 먹고 겨울에는 뿌리를 먹는 순무는 황달을 치료하고, 오장에 이로우니, 순무 씨를 아홉 번 찌고 말려서 오래 먹으면 장생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로

부터 순무의 새싹(잎), 줄기뿐만 아니라 뿌리 및 종자까지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순무의 연중 소비 작부체계 구축으로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유덕열 구청장,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자립의지 응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20일 제 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 내 소재한 다사랑행복센터 및 동문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다.

동대문구는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기념행사를 열었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감염예방을 위해 올해는 대규모행사가 아닌 기관별 나눔행사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구는 이번 행사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날 기념 장미꽃과 간식세트를 전달하고, 기관에 마스크 총 2,500개, 손소독제 80개를 전달하며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의지를 응원했다. 유 구청장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장애인들을 응원했다.

또한 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및 장애인단체 사무



실에도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기관별 요청 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는 유지해야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가깝게 유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사랑행복센터는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8,160㎡의 규모로 동대문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통합사무실, 정보화교육장 등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상반기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농아인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 “함춘호, 하림 등 유명 뮤지션과 온라인으로 음악 공부하세요”

4월 21일부터 ‘경기뮤직’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수강 가능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비대면 온라인 음악 교육 프로그램인 ‘경기뮤직아카데미’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뮤직아카데미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뮤직’ 유튜브 채널 및 ‘경기뮤직’ 네이버tv 채널에서 누구나 무료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경기뮤직 아카데미는 기존 음악 강의와 차별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선보인다. 실제 음악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작사, 작곡, 녹음, 실연 등의 분야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의 특별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강연으로 준비된다.

강사진으로는 기타리스트 함춘호

와 하림, 정인, 조정지, 정진운, 민서 등 ‘미스틱스토리’ 소속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케이준, 제이미 전, 성지훈, 고승욱 등 음악 프로듀서와 엔지니어들이 참여한다.

21일 처음으로 공개될 영상인 ‘기타리스트 함춘호의 오픈 클래스’는 기타 편곡법을 주제로 기존 강연 틀에서 벗어나 무대를 활용한 오픈 스튜디오 형태로 진행된다. 해당 강연에서는 함춘호가 제자들과 함께 연주하며 그가 가진 연주 기술을 수강생에게 전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강의 프로그램은 총 5개 과정 25차시(1차시당 15~20분)로 구성되며,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차례로 게시될 계획이다. 5개 과정은 ▲싱어송라이팅 2개 과정 ▲공연기획



및 연출 ▲EMP(랩·전자음악) ▲음향(믹스·마스터)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뮤직아카데미 영상이 뮤지션뿐만 아니라 음악을 배우고 싶은 일반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대중음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소수의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음악 현실에서 지역성과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인디스땅스, 아무공연, 뮤직페스티벌 등 다양한 경기도 음악산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273팀의 뮤지션을 육성했다. 최근수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 ‘아기새둥지’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경기도 협회 출범식 참석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7일 오후 4시부터 신곡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아기새둥지’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경기도 협회 출범식에 참석하였다.

‘아기새둥지’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 극복을 위하여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 희망콘서트 개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진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용 시장을 비롯하여 아기새둥지 명예위원장인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와 김소당 위원장, 오병구 의정부시의회의 의장, 김정겸 의정부시의회의 의원, 정길선 경기도 남부협회장, 황덕래 경기도 북부 경기도 협회장, 임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모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승조 도지사는 ‘저출산·고령

화·양극화 3대 위기 극복’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안병용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으로, 오늘 출범하는 ‘아기새둥지’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경기도 협회와 의정부시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시흥시 월곶항·오이도항, 수도권 거점 어항으로 조성

시흥시가 ‘월곶항 국가어항’과 ‘오이도 지방어항’ 중점 개발을 통한 ‘K-골든코스트’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K-골든코스트는 월곶에서 시화 MTV 거북섬까지 이어지는 15km 해안에 레저와 관광, 문화, 의료, 첨단산업 등이 집약된 미래 먹거리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주요 거점인 월곶항과 오이도항에 어항시설 등을 확충해 다변화된 어항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K-골든코스트의 시작점인 월곶항 국가어항은 총 사업비 749억 원 중 국비 311억 원을 투입(소래포구항 340억, 공통 97억)해 기존 어항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 어항의 역할을 확충한다. 현재 월곶항은 항내 퇴적물 심화로 어업 활동이 만조 시 하루 4시간만 가능하고, 접안시설이 부족해 선착장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 접안 시설과 호안시설, 물양장 등을 조성하고, 어선의 입출항이 원활하도록 준설할 계획이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 턴키식(Turn key)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착공, 2024년 조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이도항 역시 지난해 2월 지방어

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어촌의 토대를 마련 중이다. ‘지방어항 개발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며 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오이도항 지방어항 개발사업’은 월곶항 국가어항 사업처럼 오이도항에 준설과 매립, 물양장 조성 등을 시행한다. 어항기능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어민 소득을 증대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7년까지 도비 121억 원을 포함한 152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착공, 2025년 조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 오이도 선착장에는 수산물 직매장을 재설치하고, 배다리 선착장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오이도항 정비사업으로 원활한 수산물 유통과 지역 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항의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오이도항이 이 사업에 선정됐다.

오는 2022년까지 국비 63억 원을 포함한 91억 원을 지원해 자연재해를 고려한 안전시설 설치, 공동작업장 및 어구보관장 설치, 오이도항 제방정비 등으로 어업인의 불편을 최

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경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더욱더 편안하고 쾌적한 오이도항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 착수와 지역협의체 운영, 전문가 현장 방문 등을 거쳤고, 10월까지 실시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준공이 목표다.

이석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흥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해안 수변을 품은 도시로, 월곶항과 오이도항 개발은 시흥의 소중한 해양자원을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며 “수도권 중심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50만 대도시 시흥의 미래를 많이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정부기자



안양시, 비 접촉 체온계 저소득 2천 가정에 안긴다. 어떻게 해서?

‘착한기업과 함께하는....’사업에 안양시·(주)휴비덕 1:1매칭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의 필수품이 된 체온계, 비접촉으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 이 체온계 2천개가 저소득 가정에 전달된다는 소식이다.

안양시는 헬스케어 전문 관내 유망기업인 ㈜휴비덕(만안구 전파로 53)이 16일 비접촉 체온계 1천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시가 전개하는 ‘착한기업과 함께하는 행복한 안양만들기’사업에 기업체가 동참, 안양시와 ㈜휴비덕이 1:1매칭사업으로 마련했다.

㈜휴비덕은 자사가 만든 비접촉 체온계 1천개(6천만 원 상당)를 시에 기부하고, 시 또한 공동모금회의 안양시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 저렴한 가격에 체온계 1천개를 구매했다.

이렇게 마련된 2천개 분량의 체온계는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2천 가구에 전달, 식구들 간에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부응할 것이 기대된다.

시청사 1층 로비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신재호 ㈜휴비덕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향토기업으로



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언급, 관과 기업이 손잡고 함께할 때 많은 이들이 행복을 누리고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 것이라며 화답했

다. 이런 가운데 앞서 13일에는 안양시약사회(회장 황선관)가 저소득층 자녀 건강을 위해 써달라며, 구충제 1천개를 시에 기부했다. 시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에 배분을 마쳤다.

원준근기자

www.yyg.go.kr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볼게 수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럴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밥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점 대한민국의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믿고 먹는 영양군 농특산물 시리즈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산간고랭지 영양예실천사과·아삭아삭 시원달콤 영양배
피부미인 영양복숭아·저농약인종 영양포도·해발 1,219m 영양수박·비타민 단단
영양고랭지재초·신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바섯·전국
생신량 70% 영양천궁·고랭지 무공해 영양잡곡·맘으로 기른 영양임닭배

성남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지원에 온 힘을 쏟을 것'

전국 최초로 지류·모바일·카드형 3종 지역화폐 발행

성남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온 힘을 쏟겠다고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통해 1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역화폐 사용 편의를 극대화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5일 지역화폐 통합카드인 '성남사랑카드' 발행으로 전국 최초로 지류·모바일·카드형 3개 종류의 지역화폐 모두를 일반 발행하게 됐다.

오는 상반기 내내 지역화폐 모바일 Chak앱에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 앱을 연계한다. 가맹점 또한 지난해 말 9000곳에서 현재 1만7579곳으로 대폭 늘리고, 오는 연말까지 2만 5000여곳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 내 모든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과 연매출 5억원 이하의 가맹점엔 카드결제 수수료를 분기별로 보전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

업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 수내동 금호시장, 태평동 현대시장 등 전통시장 28곳을 대상으로 노후전선·LED 교체, 안전시설물 개·보수, 분전함 교체 사업 등 총 12개 분야 시설환경개선사업에 11억 원을 투입(국도비 포함)하고, 517개 점포가 입점된 중앙지하상가의 노후된 천정판넬, 전기배선, 환풍시설 교체사업도 펼친다.

전국 최대규모 성남 모란민속 5일장은 역사문화적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특화 브랜드를 개발하고, 점포를 재배치해 고객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중원구 둔촌대로83번길 일원 4만 750㎡ 규모의 성남모란 상권진흥구역 내 점포 환경 역시 내년까지 개선해 나간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도 발벗고 나설 방침이다.

시는 상반기 내 모란민속5일장, 하대원 공설시장 등 총 1377개 점포에 15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또한,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주 사



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중 은행에서 5천만원 한도 내로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융자받은 대출이자도 2년간 2%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소상공인 5만122명에게 점포당 100만원씩 501억 22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2월부터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된 소상공인 2만3170명에게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씩 총 150억 8600만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은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더 강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회복탄력성이란 말이 있듯,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전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상권을 만들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성을기자

양주시, 새마을 지도자 건강증진을 위해 양주가람한방병원과 공동협약 체결

양주시 새마을운동양주시지회는 지난 19일 옥정동 소재 양주가람한방병원에서 새마을지도자 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에는 여인우 양주가람한방병원장, 박순희 양주시새마을부녀회장, 이종용 새마을지도자양주시협의회장, 오수영 직장·공장새마을운동양주시협의회장, 최태권 새마을문고양주시지부 회장이 참석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은 양주가람한방병원은 양주시 새마을 소속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입원 또는 내원 시마다 비급여 진료비의 20% 정도를 할인해 주고 그 외에 지도자들의 건강을 위해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시기로 협력하였다.

여인우 병원장은 "평소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사회에 앞장서 생명살림, 평화나눔, 공경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고생하시는 지도자분들이 건강하게 봉사활동 하기를 응원하는 뜻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용준 회장은 "최신시설을 갖춘 양주가람한방병원에서 우리 양주시 새마을지도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파격적인 진료비 혜택 지원을 약속해 주어 감사하고 또 모든 지도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사기가 고양되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동희기자



광명시, '4월 22일 지구의 날, 지구를 구하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차량 퍼레이드, 소등캠페인 실시

광명시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22부터 28일까지를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저탄소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세계기념일로 올해가 51주년이 되는 해이다.

광명시는 앞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전 시민 설문조사(3.26~4.13)와 기후행동 손꼽게 캠페인(4.1~4.15)을 진행했으며 자전거와 초소형전자자동차 퍼레이드, 기후변화 토크콘서트, 10분간 소등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구의 날인 22일 오전 10시 광명YMCA 주관으로 자전거, 초소형전자자동차 퍼레이드 행사를 연다. 자전거 40대와 초소형전자자동차 5

대가 '광명시평생학습원-광명경찰서 삼거리-북개천삼거리-하안삼거리-신촌삼거리-가리대삼거리-우체국삼거리-광명시 평생학습원' 코스로 퍼레이드를 열며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22일 오후 4시에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후변화 토크콘서트' 세 번째 이야기가 진행된다.

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아가 광명시가 시민과 함께 에너지 자립 도시로 한 걸음 더 성장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상캐스터이자 날씨 칼럼니스트인 맹소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1부에서는 이윤진 박사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시작으로 개그맨 송영길은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의 착한 전환'을 주제로 미니특강을 연다. 2부에서는 '광명의 탄소중립 노력', '기후변화를 역행하는 우리의 삶',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광명! 미래는?'을 주제로 박승원 광명시장, 맹소영 아나

운서, 이윤진 박사, 개그맨 송영길, 한지성 학생과 함께 공감토크를 진행한 다.

오후 8시에는 지구에 휴식을 주는 10분간의 소등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는 광명시 산하 건물 등 공공기관 소등뿐 아니라 개인 가정에서 조명 소등, 전자기기 사용 멈추기 등 자발적 소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며 "지구에 휴식을 주는 10분간의 소등, 오는 22일 밤8시에 지구를 생각하는 작은 실천으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쿨루프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늘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순희기자



용인문화재단, 용인 시민이 원하는 '문화도시 용인' 추진 "용인어린이상상의숲 어린이날 행사"

(재)용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로 시작하는 예술놀이터 '초록발걸음(Green Cycle)'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체험 콘텐츠가 공간별로 운영되며, 열린도서관에서는 '부모와 함께하는 팝업북 만들기', '미션 참여 어린이에게 기증도서 및 과년호 어린이 잡지 배부' 등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성료된 상상+아카데미 '숲속연장보따리'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숲속 연장 작업소 프로그램을 무료로 특별 진행할 예정이다. 블랙라이트 인형극 '종이아빠'의 공연놀이터와 유아놀이터 이용객 및 상상+체험관 참여 어린이에게 다양한 선물 증정도 준비되어 있다.

상상의숲 숲속무대에서는 선착순 300가족에게 플라로이드 사진기로

즉석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해 주는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며, 용인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도시 용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기회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수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2021 부산국제보트쇼' 4월 23일 개막!

파랑관통형보트, 친환경 전기·수소선박, 수륙양용버스 등 해양레저 최신 제품과 신기술을 한자리에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와 벅스코가 주관하는 「2021 부산국제보트쇼」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벅스코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바다를 즐겨라! 미래를 꿈꾸자!’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보트 제조, 엔진 부품, 마리나 시설, 차터링 서비스, 낚시용품 등 해양레저산업 관련 90여 개 업체가 1,00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하여 해양레저의 향연을 펼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보트 제조 30여 개사가 참여하여 10피트(3m) 내외의 소형 보트에서 30피트(9m) 이상의 다양한 신조 레저보트와 특수선박 등을 선보여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 기술력의 가능성과 미래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전시제품으로는 우수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중국 상해 수출 예정인 웨이크 보트(케이엠씨피 주식회사), 높은 파고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 가능한 국내 최초의 파랑관통형 보트(주식회사 대원마린텍),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추진선박 및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선박

(주식회사 빈센), 색다른 감성의 유에프오(UFO) 형상의 보트(주식회사 나루) 등이 있다.

보트쇼 참여 10여 개 업체는 행사 개막일에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서 선별된 15명의 바이어와 화상 상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화상 상담회에서 바이어와 매칭된 업체는 행사 종료 후에도 보트쇼 사무국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업체들에게는 이번 보트쇼가 판로 확대의 중요한 창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출품작에 대한 홍보와 판매 촉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해양레저분야 제품을 대상으로 올해의 보트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전문 심사위원단이 제품의 기술력, 참신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총 7점의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참여업체들의 홍보 지원을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유튜브 공모전도 최초로 진행된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보트쇼 참가업체 또는 보트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총상금 3백만 원으로, 수상자에게는 최고 1백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참여·체험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전시장내 설치된 체험 수조에서는 관람객들이 카약, 스탠드업 패들 등을 직접 타 볼 수 있고, 편보트 체험 등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또한 최근 해양레저의 한 분야인 낚시 인구의 급성장에 따라 조명철, 김상현, 이창수 프로 등 유명 낚시 프로선수 초청 강연회 자리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는 무료 보트 투어가 펼쳐진다. 부산국제보트쇼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체험 행사이다. 벅스코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제트보트, 카타마란, 모노힐(파워보트) 등을 무료로 탑승하고 부산의 바다를 즐길 수 있다.

4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번 행사는 정부 방역 수칙보다 더 강화된 체계적인 방역 대책 아래 ‘방역 안전 전시회’로 진행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국제보트쇼는 코로나19로 국내·외 관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해양레

저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부산국제보트쇼가 해양레저 분야의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트쇼 입장료는 5천 원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등록된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궁영기기자



2021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거제시 공유를 위한 창조” 경남 유일 선정



거제시는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장승포동 공유를 위한 창조(대표 박은진)가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5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지원되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도시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목포 관창아마을, 서천 살기술학교, 문경 달빛탐사대가 대표적이다.

지난 2월에 전국 144개 청년기업 및 단체가 응모하여 1차 선발에서 34개팀이 통과하였고, 3월 현장심사와 4월 PT발표 및 대면심사를 거쳐 전국 12개소가 선정, 올해 청년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공유를 위한 창조는 부산에서 도

시재생 활동을 하던 청년 기업으로 7년 전부터 거제시 장승포동에 내려와 뿌리를 내렸다. 이번 공모에서는 ‘아웃도어 아일랜드’를 주제로 3번의 도전 끝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박은진 대표는 “공모에 떨어질 때마다 부족함을 깨닫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그동안 거제시와 경남도의 행정적인 지원에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광웅 거제시장은 “청년들의 도전정신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며 “공유를 위한 창조가 작년에 추진한 청년, 거제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올해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영훈기자

하동 친환경 매실 씨살이좀벌 첫 드론 방제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친환경 매실 2310㎡ 규모 드론 방제 시범사업 추진

농업 분야에서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의 대표작목 중 하나인 매실밭에서 드론을 활용한 첫 방제가 이뤄져 매실 생산농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동군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매실 생산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매실 씨살이좀벌 방제를 위해 지난 주말부터 5월 1일까지 이틀에 한번씩 총 8회에 걸쳐 2310㎡(약 700평) 규모 매실농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친환경 약제를 시범 살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매실 씨살이좀벌 드론 방제는 드론방제 전문업체가 매실 주산지인 하동읍 화심리에서 친환경 매실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당 농가는 올해 매실 씨살이좀벌 방제를 위해 여러번 작업을 해야 하고 고령화로 방제에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이번 드론을 활용한 방제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드론 방제는 매실농장으로는 하동군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경사가 심한 산지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에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드론으로 방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하동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

박영규 농업소득과장은 “친환경 매실을 재배하는 곳으로는 이번에 처음 드론 방제를 실시한다”며 “앞으로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서 드론을 활용한 배인공수분 시범사업을 비롯해 딸기하우스 차광도포 시범사업, 야생자발드론 시비 시범사업 등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결하고자 드론을 활용한 여러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산청군 삼장면 일원 깨끗한 물 공급사업 ‘착착’

산청군이 삼장면 일원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삼장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9일 군은 올해 30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삼장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2차분 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총 사업비 97억3600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2월까지 300t 규모의 배수지와 가압장 2곳, 관로매설 48.44km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삼장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방상수도 시설 증설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삼장면 일원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지난해 2월 1차분 공사를 착

공한데 이어 이번에 2차분 공사를 착공했으며, 앞으로 조기준공에 힘써 공급시기를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삼촌마을과 북촌·동촌·서촌마을부터 대포, 대하, 신촌마을 등 19개 마을 810여 가구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또 배수지와 관로 설치 외에도 해당지역의 노후화된 계량기를 교체해 주민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군은 앞서 지방상수도가 미치지 못해 지하수 등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단성 저호, 금서 방곡 등의 지역에도 상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군은 현재 1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단성정수장 증설과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오부지구·금서지구 등 24곳의 상수도 확장과 인입

공사를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산간 오지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 내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물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생활인프라 개선 사업인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영훈기자



대구 수성 위버센터럴

광주광역시, GGM·도시철도 2호선 광주경제에 활력

글로벌모터스 인력채용 한창... 광주·전남 출신 90% 이상 차지

광주의 핵심 현안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지역 업체와 장비, 인원이 대거 투입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다.

더욱이 민선7기 들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이들 사업은 광주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미래형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사업들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공장 건설을 끝마치고 시험가동에 들어간 광주글로벌모터스는 385명의 인력을 채용한 데 이어, 현재 기술직 신입사원 137명에 대한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이다.

채용을 완료한 385명 중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90.9%를 차지했으며 모집 중인 기술직 신입사원 역시 지역 출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초의 취지대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지역 청년들에게 소중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또 자동차 공장 건설 과정에 투입된 44개의 장비업체 가운데 광주·전

남지역 업체가 98%인 42개에 달했으며, 투입인력도 연인원 13만7209명 중 지역 인력이 79%인 10만9354명을 차지했다.

공장 건설 과정에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에 참여한 업체 54개 중에서도 지역업체가 30개에 달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금액(직접공사비)의 62.8%가 지역업체에 지급됐다.

이 밖에도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의 30% 이상을 지역 식자재로 사용토록 의무화했으며, 구내식당 인력도 70% 이상을 지역민으로 채용토록 했다.

미래 대중교통의 핵심으로 역할을 하게 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도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발주된 1단계 본선 1~6공구 건설공사와 2020년 6월 발주된 1단계 차량기지 건설공사 등 7건의 공사 4879억원 중 공동도급 광주업체가 1402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구별 하도급 계약 3319억원 가운데 광주업체는 70%인 2318억원에 이르고 있

다.

기전분야에서는 1단계 본선 접지공사 3건, 지장물 이설공사 4건, 차량기지 공사 6건 등 총 13건 167억원 중 광주업체가 76% 127억원에 참여하고 있다. 또 1단계 본선 전기공사는 송변전 3건, 일반전기 6건, 전차선 3건 등 총 12건 409억원 중 광주업체 참여는 61% 248억원에 달한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시공능력 우수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현행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단계 토목·건축 공사의 경우, 차량기지 6개 공구로 분할해 발주했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70%에 이르렀다.

아울러, 후속 공종인 전기·기계·통신 분야도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하고 공구를 분할한 결과, 4월7일 기준으로 광주업체의 참여비율이 76%에 이르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디지털·그린·휴먼 등 광주형 3대 뉴딜과 아이낱아 키우기 좋은 광주 등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변혁기를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덕윤/기자



곡성군,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순조롭게 진행중

곡성군은 4월 19일 현재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중증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접종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5,356명 중 접종에 동의한 4,456명이 대상이며, 곡성을 문화체육관광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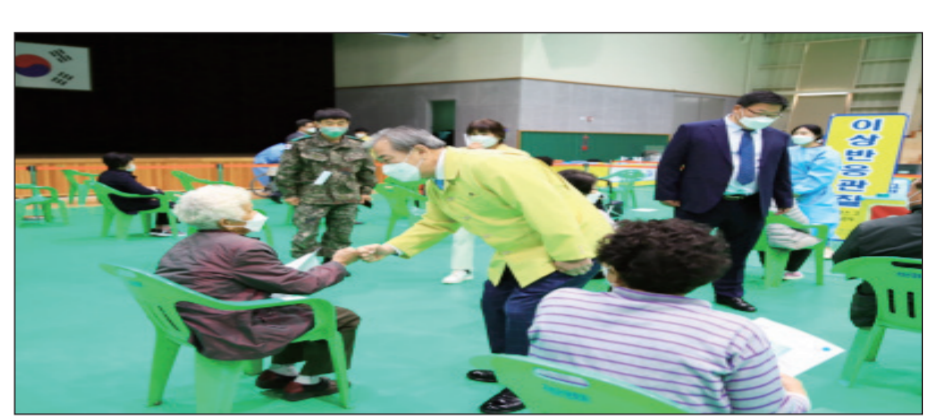
지난 15일 곡성읍권역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16일까지 204명이 접종을 마쳤으며, 특별한 이상반응

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는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 수송을 위해 1일 3~4대 수송버스를 각 마을 별로 운행하고 있으며, 전담인력 70여 명을 배치하고 "명찰 착용, 사전 문진표 작성, 반팔 착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원활한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유근기 군수는 "집단면역이 조속히 형성되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상홍/기자



전남도, 23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싱크탱크 가동

2023년 전남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전문가그룹이 발족했다.

전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국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된 체전 분야별 전문가 4개 분야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체전 전문가그룹을 출범했다.

분야별 위촉 위원은 개·폐회식 분야 차수정 숙명여대 무용과 교수,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학과 교수, 장진만 오산대 공연축제콘텐츠학과 교수, 문화체전 분야 이희승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이재형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이상현 한국문화재재단 위원 등이다. 또 대회홍보 분야 김철호 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박병호 카이스트 경영학부 교수, 박용진 청운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경기운영 분야 윤경호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 차장, 전선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장, 김경환 전라남도체육회 부장, 차성기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팀장이 위촉됐다.

체전 전문가그룹은 개·폐회식, 문



화체전, 대회 홍보, 경기 운영 등 4개 분야에서 두 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연구 및 자문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이미 평창동계올림픽,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규모 행사에서 큰 활약을 해 온 유경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체전 주요 사항을 수시로 자문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23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은 개·폐회식부터

경기운영, 각종 문화행사,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체전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대회라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주요 행사를 이끈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성공적인 대회를 여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목표를 주개최지로 도내 22개 시군 76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김영만/기자

확 달라진 함평 나산강변 '지역발전사업 주민이 직접 나섰다'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간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 추진

전남 함평군 나산면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나산강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민간 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지역발전을 위한 나산강변 주변 관광기반 시설 구축과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해 나산면 청년회, 방방대, 농민회 등 사회단체가 결집한 후 여기에 나산면, 나산면민회, 나산면 이장협의회가 동참하면서 민관 협력단체인 '나산강변 가족나들이공원추진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추진위원회는 출범 직후 나산강변 및 앵두공원 일원 정리와 버드나무 이식작업, 앵두공원~나산교 구간 산림지 잡목제거, 나산강 수변공원 잡목제거 등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또한 버드나무 이식(10주), 유채 식재(10,000㎡), 꽃양귀비 식재(10,000본), 수선화 구근 식재(10,000개) 등



25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원 가꾸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나산강 가족나들이공원 조성을 위한 주요 시설 등을 건의해 지난해 말까지 관리도로, 다목적 광장(2개소), 버드나무 숲 정비, 정자 설치 사업 등을 완공했다.

올해는 기 반영된 8억 원 규모의 축구장(4개소), 목교설치(4개소), 축구장 부지조성, 수목식재 등 세부

사업에 대해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관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역발전 사업이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지난해 실시한 나산강변 가족나들이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신청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요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강원도교육청, 학부모대상 2023~2024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해와 준비 설명회

강원진학지원센터 주관, 17개 지역 고1~고2 학부모대상 변화하는 대입제도 설명회

강원도교육청은 24일 오후 2시, 도내 17개 지역에서 고등학교 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3~2024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해와 준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흥천문화원, 태백문화예술회관, 그 외 15개 지역 교육지원청 등에서 열리며, 강원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단, 대입지원관, 장학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고등학교 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강원진학지원통합시스템(갑자바) 프로그램 매뉴얼 안내, 대입제도 및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대입준비 등을 중심으로 2023~2024학년도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대한 진학 지원

전략과 대응 방안이 제시된다.

도교육청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코로나19 방역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한다.

행사장에는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참석자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 확보한 자리 배치, 지역별 참석 인원 제한, 연수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여행력이 있는 경우 참석 금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 자제 등을 사전안내하고 철저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 못하는 학

부모님들을 위해 설명회 대표 영상물과 관련 자료를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강원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학끼오TV에 당일(24일 14시)에 탑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준형 교육과정과장은 "이번 연수는 올해부터 변화하는 대입제도 및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강원진학지원통합시스템(Gamjava)을 통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 알찬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정선군,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의 진상과 특이점에 관한 조사보고회

오는 4월 21일 사북항쟁 41주년을 맞아 정선지역사회연구소는 1980년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의 실상에 관한 조사보고회를 20일 오전 10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의 실상과 특이점에 관한 조사보고서'는 지난 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9개월 간 수천 쪽의 문건과 약 50명에 달하는 증언자의 구술을 조사하고 정리한 결과이다. 20년 전인 2001년 9월 이월갑·신경 등 사북항쟁 핵심관련자 30여 명이, 자신들이 겪은 고문 상황을 기자들 앞에서 재연한 이래, 간헐적으로 고문 피해에 관한 증언이 있었지만 이번 보고서는 "사북항쟁 시기의 국가폭력"이라는 단일 주제로는 처음 시도된 종합적 연구조사 성과다.

회의 의뢰를 받아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대 조사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연구팀은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80년 사북사건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서강대 인문학연구소의 구술 기록(2010~2015), 국사편찬위원회 구술 기록(2017)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구술 기록(2018) 등 기존 자료를 모두 검토하면서 국가폭력 관련 내용을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이와 별도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15명을 직접 만나 국가폭력에 관한 상세한 구술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특히 최근 사북항쟁의 역사적 사실 관계를 철저히 고증하며 새로운 증언을 발굴해 나가고 있는 사북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팀(감독 박봉남)의 인터뷰 자료(2020)는 이번 보고서 완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며, 번역 작업을 거쳐 유엔인권위원회에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국가폭력의 사례로 보고하고 여러 인권단체와 연대하여 사북항쟁 관련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수/기자



홍천군, 16기 청소년참여기구 발대식 개최

청소년참여위원회(15명), 청소년운영위원회(14명) 구성

홍천군은 지난 4월 17일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제16기 홍천군청소년참여위원회 및 홍천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홍천군 청소년 참여기구는 지역청소년 중 만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출하며, 1년 동안 홍천군 청소년을 대표하여 활동하게 된다.



이등원/기자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결과 청소년참여위원 15명, 홍천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 14명으로 총 29명의 청소년을 선발했다.

발대식에서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역할 및 정책제안 방법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위촉장 수여, 임원 선출, 2021년 연간운영계획 및 활동 일정 등을 논의하는 등 올해 첫 청소년 자치활동을 시작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는 홍천군의 청소년정책 발굴 및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소년 토론회 개최 및 캠페인 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홍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청소년을 위한 기획사업, 요구도 설문조사, 자원봉사활동 등 각 청소년 자치기구별로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청소년활동 활성

정동희/기자

삼척시, 준경묘·영경묘 청명제 봉행

조선왕조의 태동지인 삼척 준경묘·영경묘의 봉심 제례의식 '청명제'가 20일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준경묘·영경묘역 및 재실 일원에서 열렸다.

청명제는 고종이 1899년 이돌 무덤을 새롭게 고쳐 쌓은 후 묘호를 준경과 영경으로 정한 후 제향을 나라에서 직접 거행하라는 조칙을 내림에 따라 시작됐다.

준경묘는 조선 태조의 5대조인 양무장군의 묘이고 영경묘는 그의 부인 이씨의 묘이다. 조선왕조 태동의 발상지로서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24호로 승격됐다.

이등원/기자



원주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6,766억 원 편성

1,477억 원(9.66%) 증가, 본예산에 이어 확장적인 재정 편성

원주시는 본예산 대비 1,477억 원(9.66%)이 증가한 1조 6,76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19일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 현안마무리 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초점을 두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하여 전략적이고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



코로나 일상의 부조리를 풍자한 장범순의 "Post Corona"展

(재)강원디자인진흥원은 2021년 첫 초대전으로 장범순 작가의 'Post Corona'展을 4월 20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흥원 제3, 4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로 급변한 사회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한 장범순 작가의 작품을 모아 선보이는 이번 초대전은,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전시점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장범순 작가는 세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를 지냈으며, 삶과 현실의 이야기를 날카롭고 재치있게 풍자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현재 이를 작품 활동의 중심 소재로 다루고 있다.

이번 전시는 아크릴 재료를 활용한 'We can do it', '잠! 잘했어요', '원무'를 비롯한 회화 14점과 설치작품 2점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작가 노트를 통해 "전 세계가 눈만 뜨면 뜨면 확진자 숫자를 확인하고 근심걱정으로 잠들지 못하고 있지만 반면에 전 세계가 이렇게 한마음이 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이는 세계평화를 앞당기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냐는 생각으로 작품을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김종근 미술평론가는 "그의 작업은 코로나 시절에는 자발적 격리 차원에서 벗어지는 울고 싶고 어찌면 웃고픈 스토리를 천대만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진풍경을 도처에서 끄집어 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진흥원의 이번 전시회는 팬데믹 사태로 변화된 사회의 모습과 일상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작품을 통해, 코로나-19 해소를 위한 디자인적 영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전시행사 개최로 지역 디자인문화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등원/기자



춘천,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트리코스터 '첫선'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남이섬 트리코스터 구축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곡선형 하강레저시설인 트리코스터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춘천시정부는 오는 19일 오후2시 남이섬 트리코스터 모험센터 앞에서 '열린관광지 트리코스터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트리코스터는 트리와 롤러코스터의 합성어로 나무 사이에 설치된 트랙을 별도의 전기동력 없이 이동하는 친환경 레저시설이다.

무엇보다 특수 장비를 착용해 장애인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남이섬에 설치된 트리코스터는 전체 길이 115m, 출발점 높이 8.8m, 착지점 높이 6.5m며 비장애이용과 장애인용으로 나눠 운영한다.

이번 트리코스터 구축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열린관광지는 누구나 불편하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남이섬, 의암호 킹카누, 소양강스카이워크, 박사마을어린이클럽장 등 4개소를 조성했다.

특히, 특화 체험 콘텐츠로 국내 최초 휠체어 탑승 킹카누와 장애인 이용 가능한 트리코스터가 제작됐다.

남이섬 트리코스터의 경우 장애인 요금은 60% 할인 적용으로 4,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이철호 관광과장은 "장애인도 함께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시정부는 관광지의 장벽을 계속해서 없애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춘천시민 모두가 춘천 곳곳의 관광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충북도 대표브랜드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입소문의 시작

4/26까지 충주호 및 대청호 바이럴 마케팅 홍보업체 모집

충청북도는 충북 대표관광브랜드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을 집중 홍보할 홍보 업체를 이달 2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은 호수 9경으로 선정된 충주호와 대청호의 주변 관광자원을 여행과 연결하는 충북형 특화관광콘텐츠 사업이다. 충북도는 국내에서 유일한 내륙도라는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호수가 있는 레저·휴양 관광도시임을 알리기 위해, 바이럴마케팅 홍보업체를 선정해 SNS와 각종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공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충북도 관광

항공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기술능력(60%), 업무수행능력(30%), 제안가격(10%)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심사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으로 순위를 결정해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충북도 임보열 관광항공과장은 “바다처럼 넓은 충주호와 대청호는 내륙도 충북의 반전매력을 보여주는 충북만의 관광자원”이라며, “성공적인 홍보를 통해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이 알려지게 되면 충북이 새롭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보령시, 올해 일자리 8,061개 창출로 민선7기 동안 일자리 3만 개 이상 달성한다.

보령시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관련해 2021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해 공시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시민들에게 공시하는 제도다.

시는 민선7기 3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 실천을 위해 지난해 20,893개, 올해 8,061개, 내년 상반기까지 4,055개 등 총 33,009개(110% 초과 달성)를 목표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5대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

고용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선정했다.

특히,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 중 일부 팀을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웅천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여건을 반영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세종시 작은별콘서트 참가할 끼 넘치는 어린이 모여라

5월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송출...25일까지 참가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중 세종 어린이 대축제 '작은별 콘서트'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참가할 어린이를 모집한다.

시는 안전하고 내실 있는 '세종 어린이 대축제' 행사를 5월 한 달간 청소년센터, 문화재단 등 협력기관 어린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작은별콘서트는 코로나19로 무대에 오르고 싶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던 끼와 장기를 뽐내고 싶은 지역 어린이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5분 이내 노래, 댄스, 악기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어린이로, 서류심사를 거쳐 총

10명의 팀을 선발, 28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팀은 오는 5월 5일 제99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세종시 유튜브 브에서 라이브로 송출되는 작은별 콘서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팀원 모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축제 관련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수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올해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코로나로 억눌렸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작은별콘서트를 포함해 세종 어린이 대축제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당진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총력

국제대회 유치 및 시민 건강증진 효과 기대

당진시가 고대면 당진종합운동장 일원에 사업비 241억 원이 소요되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해 다음 달 중앙 재정투자심사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38개의 클럽 1,150여 명의 동호인과 초·중·고·실업팀으로 연계된 선수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코치 1명, 국가대표 선수 2명, 국가 대표급 선수 2명을 보유하고 있으나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어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시설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 지난 12월 시에서 실시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설문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61.7%, 건립시 향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4.9%에 달해 시민들의 숙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 및 배드민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김모씨는 “평소 배드민턴 동호회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종목 특성상 우천 시에 체육시설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껴왔다”며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안 예산팀

장은 “5월에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운영 중인 경남 밀양시를 방문해 시설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심사에 대비했다”며 “지역 현안사업인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이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사업비 241억 원 중 국비 6억을 기 확보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방문해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발전소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용예산 확보를 통해 재정 운용할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공모 신청

충남도는 교육부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공모에 대전·세종시와 함께 복수형으로 사업계획서를 최종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기업, 연구소 등 혁신기관들이 협력체계인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창업 및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광역지자체의 연합인 복수형 플랫폼 1개를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플랫폼에는 연간 48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된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인재가 감소하고 자동차 및 정보통신 등 지역 주력산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육성과 신기술 개발,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미래산업 전환이 절실하다.

충남도와 대전·세종시는 충남의 제조역량, 대전의 연구역량, 세종의 실증역량 등 지역의 강점을 살려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목표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핵심 분야는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와 모빌리티 ICT의 2개 분야에 △친환경 동력시스템 △지능형 전장제어시스템 △첨단센서융합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 소재 부품장비 △자율주행서비스 △스마트 휴먼인터페이스 △차세대 통신융합 △SW/AI 융합플랫폼 등 8개 요소로 구성됐다.

사업 내용은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창업생태계 조성이다.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대학 간 공동 학사조각인 공유대학 운영과 대학별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우수인재를 공급한다.

기술고도화는 내연기관의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소재관리 원천기술의 고도화, 부품장비 관련 국산화 기술 확보, ICT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고도화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꾀한다.

기업지원 분야는 산·학·연 중개 프로그램 운영, 신뢰성 평가 지원, 테스트베드 제공, 애로기술 해결 및 자문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창업생태계 조성 분야에서는 창업 교육을 통한 학생 자립, 신생기업 지원, 지역 스타트업 육성 및 발굴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이끈다.

지역혁신 플랫폼에는 충남도, 대전·세종시와 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를 비롯한 24개 참여대학, 교육청, 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대학과 지역의 위기는 곧 국가 위기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추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의 대학들이 삼철을 기울여 마련한 지역혁신 플랫폼 계획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6일 사업계획서 마감 이후 선정평가를 실시해 5월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대한민국 핫3인방’ 남해를 알린다

에이티즈 최산·바둑프로기사 신진서·트롯가수 나상도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대사 임명

글로벌 아이돌 스타로 자리잡은 에이티즈의 멤버 ‘최산’, 신공지능이라 불리며 세계바둑계를 호령하고 있는 ‘신진서’ 9단, 차세대 ‘트롯신’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나상도’가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임명된다.



남해군은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앞두고 남해군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남해군 출신 유명인사 3명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3인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기를 점하고 있는 그야말로 ‘핫’한 인기 스타라는 점에서 이국적이면서도 토속적인 청정 자연 풍광을 간직한 남해군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티즈’는 글로벌 퍼포먼스 아이돌로 해외에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점점 국내 입지도 역시 높아지면서 국내 팬덤 규모가 커지는 등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이돌로 그룹으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멤버 최산은 남해읍 출신으로, 예능 방송에 출연해 ‘남해읍 최초 아이돌’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SBS ‘트롯신이 떴다’를 기점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실력과 끼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대표곡 ‘벌떡 일어나’를 본떠 ‘벌떡 가수’라는 예명으로도 불리는 나상도는 서글 서글하고 재치있는 무대매너와 중후하면서도 밝은 음색으로 대한민국 차세대 트롯트 대표 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기스타들 인만큼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남해군 홍보팀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홍보대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대구농협 직원봉사단, 달성군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대구농협 직원봉사단은 16일 달성군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은 대구농협 직원봉사단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중 일부를 모아 마련했으며, 코로나19로 유난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기탁식에 참석한 박병희 영업본부장은 “이번 성금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소득 가정에 희망이 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하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470여 명으로 구성된 대구농협 직원봉사단은 명실상부 7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답게 매년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어려운 이웃돕기 물품 지원 등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강영훈/기자

의왕시 내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영양담죽 20가구 전달

의왕시 내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영양담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는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건강 영양죽 배달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내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협의체 위원들은 영양죽을 배달하며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계셨던 어르신들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가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준규/기자

서산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관내 어린이 후원 약속!

서산시가 아이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 및 서산후원회와 아이들의 안정적인 후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넉넉한 서산사랑 아이사랑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맹정호 서산시장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신경근 충남지역본부장, 노치석 서산후원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아이사랑 캠페인 추진 및 홍보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후원자 발굴 및 관내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정기 후원을 약속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협약 후 KF94 마스크 5천 장도 시에 기탁했다. 시는 관내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신경근 충남지역본부장은 “서산시와 함께 저소득층 어린이 후원에 뜻



을 같이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가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협약을 통해 나눔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길 기대한다”며 “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돼 살기 좋은 서산,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지원하는 재단으로 후원을 희망할 경우 충남지역본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고정화/기자

㈜성신구조ENG, 창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기탁



창원시는 19일 오전 10시 ㈜성신구조ENG(대표 김경민)가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성신구조ENG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한 것이며, 코로나19와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성신구조ENG는 건축물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건축물 구조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R&D 연구개발 및 기술전문교육을 통해 매년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매년 경남종합사회복지관과 창원대학교에 정기적으로 성금을 후원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

눔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경민 ㈜성신구조ENG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가운데 지역사회의 위기에 나눔 실천하고 있는 창원시의 기업들을 보며 함께 동참하고자 결정하게 됐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주변 이웃을 돌보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각계각층에서 기부해주시는 덕분에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수원시, '수원특례시 실현' 염원하며 우리나라 100대 명산 등반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수원특례시 실현’을 염원하며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등반한 수원시민 박승규(50)씨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박승규씨는 ‘수원특례시 실현’을 기원하며 2018년 9월 1일 오대산 비로봉을 시작으로 100대 명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지난 4월 17일 충남 서산에서 100번째 등반을 했다.

덕유산·관악산·설악산·속리산·소백산·팔공산·내장산·태백산·한라산 등 틈틈이 산을 올랐다. 정상에서 수원특례시 실현 염원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했고, 인증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수원특례시를 홍보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

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월 9일 이후에도 박씨는 등반을 멈추지 않았다.

박승규씨는 “시민들이 수원특례시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를 시민들에게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16일 창립한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염태영 시장은 “누구보다 앞서서 수원특례시를 홍보해주신 박승규씨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특례시 행정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 최동규 명예보유자 별세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 최동규(1942년생) 명예보유자가 4월 16일 오전에 별세하였다.

강릉농악은 대표적인 영동농악의 하나로 농경생활을 흥내 내어 재현하는 농사품이기가 있어 농사품이농악이라고도 한다. 강릉농악은 타 지역에 없는 달맞이굿(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것), 햇불놀이, 놋다리밟기(젊은 여자들이 1명을 뽑아 자신들의 허리 위로 걸어가게 하는 놀이)가 있고, 두레농악이라 할 수 있는 김매기농악과 질머기, 길놀이농악이 있는 것이 특색이다.

9세의 어린나이에 농악에 입문하여 무동, 범고 등의 전수를 받기 시작한 고(故) 최동규 명예보유자는 8기탕을 일찍이 인정받아 1980년부터 농악대의 지휘자적인 상사로 활동해왔다. 1983년부터 강릉단오제 농악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탁월한 기량을 바탕으로 강릉농악을 전승해오던 고(故) 최동규 명예보유자는 1996년 전수보조자로 인정되면서 강릉농악 전승의 중심에서서 한평생을 강릉농악의 보전과 전승활동에 헌신해왔다. 고(故) 최동규 명예보유자는 강릉농악 종목에 대한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전순희/기자



5월 가정의 달 아버지날에 만나는 가족극 <에스메의 여름> 개최

대한민국 연극대상,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20 공연 베스트 7 수상작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에서 개최하는 가족극 <에스메의 여름> 공연이 5월 8일(토) 11시, 15시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광명문화재단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는 '세대공감 프로젝트-있다' 시리즈를 2021년 기획하였고 그 첫 작품으로 가족극 <에스메의 여름>을 선보인다. <에스메의 여름>은 어린이에게는 눈높이에 맞는 놀이 언어로 소통하고, 어른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냈던 정서적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아버지날을 맞이하여 온가족이 함께 공연을 보며 가슴 따뜻해질 수 있는 공연이다.

가족극 <에스메의 여름>은 매년 여름을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에스메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첫 해, 할아버지와 보내는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가족의 소중함을 담아낸다. 연극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는 '상실의 슬픔'을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편제이가 선정한 영국 10대 희극작가 마이크 케니의 <Walking the Tightrope>을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은 할아버지와 손녀가 보내는 시간을 시적인 언어와 정제된 음악, 인물과 코러스의 놀이, 샌드아트 영상과 그림자 등을 활용한 동화적 감성의 연출로 제13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20 공연 베스트 7에 선정된 작품이다.

본 공연은 5세 이상 관람가이며 관람료는 R석 20,000원, S석 10,000원이다. 예매는 광명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www.gmcf.or.kr)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시 예매 수수료가 없으며, 광명시민 20%, 어린이 및 학생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광명시민회관에서 기획한 'GMC 초이스' 공연 관람 후 현장에서 관람카드에 스탬프를 받으면 광명시민회관 기념품을 증정하는 <GMC 관람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연 3회 관람 시 양말 2중, 5회 관람 시 고급 핸드타월세트를 증정한다.

전순희기자



청주시립무용단 '도로시의 환상대모험' 티켓 오픈

4월 20일 오후 3시부터 예매 시작

청주시립무용단(예술감독 겸 상임 안무자 김진미)이 오는 5월에 선보이는 가족을 위한 무용극 '도로시의 환상대모험' 티켓 예매를 4월 20일 오후 3시부터 공연예상을 통해 시작한다.

이번 공연은 명작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각색한 작품으로 아이에게는 교훈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부모에게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동심의 이야기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연장을 찾은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용극이다.

'도로시의 환상대모험'은 내달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간 총 6회의 공연으로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김진미 예술감독의 독창적인 연출과 윤미경, 오진경 상임단원이 공동 안무를 맡아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구성으로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추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장료는 전석 5000원으로 4세 이상 관람가이며, 사전예매만 가능하다.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객석 띄어 앉기와 관람 시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 체크 등을 시행한다.

최만식기자



여주곤충박물관, 2021년 다채로운 전시·교육 사업의 장 열어

여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여주곤충박물관(관장 김용평)에서 2021년을 맞아 다채로운 전시와 교육의 장 마련을 준비 중이다.

먼저, 교육사업은 2018년부터 이어온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올해도 선정되어 4년 연속 운영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이 함께하는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박물관을 거점으로 아동,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유물과 현장, 역사와 사람이 만나는 인문학의 새로운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여주곤충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곤충을 JOB아라~!'는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교육부 꿈길 진로 체험 정식 등록 프로그램으로서 특히 2019년 우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점은 인간-곤충-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일회용품 줄이고자 DIY 텃밭 만들기 체험, 에벌레 및 에벌레사육키트 체험 등과 함께 작년 여주 관내 박물관·미술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큐레이터 진로체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추진하는 '2021년 사립박물관 미술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수요 확대에 따라 사립박물관 미술관의 온라인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여주곤충박물관은 현 박물관 위치에서 명성황후생가 근처(능현동 166번지)로 확장 이전하는 이슈를 토대로 가상 현실 콘텐츠(VR)와 함께 곤충 및 파충류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곤충 관련 유명 유튜버를 섭외해 기획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여 올해 9월경 최종 완료 목표로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평 관장은 "올해에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족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있다. 위 두 가지 사업을 필두로 이전하는 박물관에서 보다 성숙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박물관 콘텐츠 연구와 개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여주 관내는 물론 대중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펼쳐지고 있는 여주곤충박물관. 여주 지역 내 사립박물관으로서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임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수기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무형유산 너나들이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종희)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을 개최한다.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엮어 다양한 구성과 음악적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의 무대로, 올해는 8팀이 무대를 장식한다.

첫 무대인 ▲ 4월 28일에는 김준수, 유태평양, 한용원 밴드가 출연해 KBS 불후의 명곡에서 사랑받았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국악과 재즈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 5월 26일 공연에는 사물놀이의 대부 김덕수 명인, 양상블 시나위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시나위 음악과 진화하고 있는 전통음악을 선보인다. ▲ 6월 30일 공연에는 북한 지역

인 황해도 옛 음악을 원천으로 다양한 음악적 창작을 시도하며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엮어내는 밴드 악단광칠의 무대가 열리며 ▲ 7월 28일에는 자유롭고 새로운 한국적 현대음악, 짐시처럼 자유롭게 모든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남자 3인방 그룹 '상자루'의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 8월 25일에는 한국 전통악기와 음악을 기반으로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연주자의 즉흥성을 극대화하는 연주를 보여주는 그룹 블랙스트링 공연이 펼쳐진다. ▲ 9월 29일에는 비브라포니스트이자 작곡가 마더바이브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김현성이 함께하는 비브라폰과 피아노, 그리고 다양한 국악기와의 만남의 무대가 열린다. ▲ 10월 27일에는 목소리로 우리 국악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국내 유일의 국악아카펠라 그룹 '토리스'가 무대에 오른다. ▲ 11월 24일에는 전통음악 '편경'을 중심으로 우리 음악을 새롭게 해석하여 임용주의 '핑' 공연이 열린다.

최만식기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무형유산 너나들이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종희)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을 개최한다.

'너나들이'는 서로 '너', '나'하고 부르며 티놓고 허물없는 사이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어제와 오늘을 담은 21세기 무형유산을 '너', '나'하며 친구처럼 즐기는 사이를 뜻한다.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엮어 다양한 구성과 음악적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의 무대로, 올해는 8팀이 무대를 장식한다.

첫 무대인 ▲ 4월 28일에는 김준수, 유태평양, 한용원 밴드가 출연해 KBS 불후의 명곡에서 사랑받았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국악과 재즈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 5월 26일 공

연에는 사물놀이의 대부 김덕수 명인, 양상블 시나위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시나위 음악과 진화하고 있는 전통음악을 선보인다. ▲ 6월 30일 공연에는 북한 지역인 황해도 옛 음악을 원천으로 다양한 음악적 창작을 시도하며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엮어내는 밴드 악단광칠의 무대가 열리며 ▲ 7월 28일에는 자유롭고 새로운 한국적 현대음악, 짐시처럼 자유롭게 모든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남자 3인방 그룹 '상자루'의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 8월 25일에는 한국 전통악기와 음악을 기반으로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연주자의 즉흥성을 극대화하는 연주를 보여주는 그룹 블랙스트링 공연이 펼쳐진다. ▲ 9월 29일에는 비브라포니스트이자 작곡가 마더바이브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김현성이

함께하는 비브라폰과 피아노, 그리고 다양한 국악기와의 만남의 무대가 열린다. ▲ 10월 27일에는 목소리로 우리 국악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국내 유일의 국악아카펠라 그룹 '토리스'가 무대에 오른다. ▲ 11월 24일에는 전통음악 '편경'을 중심으로 우리 음악을 새롭게 해석하여 임용주의 '핑' 공연이 열린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수칙을 준수하여 객석 제한 운영이 이루어진다. 관람객은 공연장 입구에서부터 손 소독, 발열 체크, 1m 이상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연장 출입부터 공연 후 공연장을 나갈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공연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최재은기자

속초문화예술회관 아버지날 기획공연 '쇼그맨' 개최!

속초시가 5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와 5시 30분, 2회에 걸쳐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속초문화예술회관 2021년 맞춤형 기획공연 아버지날 개그버라이어티 쇼그맨을 개최한다.

5월 가정의 달, 특히 아버지날을 기념하여 부모들 세대에게는 익숙하고, 현재도 왕성하게 방송활동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인지도 높은 개그맨들이 출연하여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기획한 본 공연은,

개그 20년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성호가 개그와 애드립에, 김원효의 파격적인 분장쇼와 만능 엔터테이너 김재욱의 최강 마술, 그리고 개콘 no.1사전 MC 정범균의 튀는 입담에, 열광팬장 이종훈의 몸개그 등 개그경력합 60년인 내공이 검증된 개그맨들이 그간 방송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오직 공연에서만 볼 수 있는 개그, 마술, 몸, 분장, 유행, 노래로 구성된 개그버라이어티가 미친 듯이 웃음을 선사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5인5색 퍼포먼스를 펼친다.

장봉주 문화체육과장은 "개그+마술+음악+연기+퍼포먼스가 한자리에서 펼쳐져 관객들이 한눈 팔 틈 없이 몰입과 폭소를 선사하는 공연을 준비해 왔다."면서 "온 가족 모두 함께 즐겁게 웃으며 공연 관람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풀고 가시기 바라며,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게 방문토록 준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공연 예매는 4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속초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1인당 최대 4장까지 가능하고, 관람료는 2만원으로 책정했으며, 객석은 동반자의 좌석 한칸 띄어 앉기로 운영된다.

최재은기자



‘오! 주인님’ 이민기X나나X강민혁, 대본 열공 포착 ‘집중 또 집중’ 백지영, 장필순과 듀엣곡으로 호흡

‘오! 주인님’ 이민기, 나나, 강민혁의 대본 열공이 포착됐다.

MBC 수목미니시리즈 ‘오! 주인님’(극본 조진국/연출 오다영/제작 넘버스리픽쳐스)이 반환점을 돌았다. 초반 밝고 통통 튀는 로맨스로 시작한 ‘오! 주인님’은 중반부를 넘어서며 한층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낼 전망이다. 한비수(이민기 분), 오주인(나나 분), 정유진(강민혁 분)의 삼각 로맨스는 깊어지고, 8회 엔딩에서는 한비수를 둘러싼 출생의 비밀까지 암시된 것이다.

극이 깊어지는 만큼 배우들의 연기 역시 한층 섬세하고 깊어졌다. 밝고 귀여운 분위기부터 성숙한 감정 표현까지 담아내는 세 배우는 ‘오! 주인님’에 대한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여준다는 반응. 이런 가운데 4월 19일 ‘오! 주인님’ 배우들의 깊이 있는 감정 표현 비결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사진은 ‘오! 주인님’ 촬영 현장에서 포착된 이민기, 나나, 강민혁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 속 세 배우는 촬영을 준비하는 중에도 늘 손에서 대본을 놓지 않고 있다. 한껏 대본에 집중한 이민기의 눈빛, 보고 또 봐서 살짝 닳은 나나의 대본, 대본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강민혁까지, 세 배우의 ‘오! 주인님’을 향한, 각자 자신의 캐릭터를 향한 애정이 느껴진다.

이와 관련 ‘오! 주인님’ 제작진은 “‘오! 주인님’이 반환점을 돌면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낼 전망이다. 이민기, 나나, 강민혁은 스토리에 맞춰 한층 성숙한 연기로 극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늘 최선을 다해주는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 주인님’이 완성될 수 있는 것 같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 주인님’ 8회 엔딩에서 한비수가 엄마 강해진(이희향 분)을 찾아가 자신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에 대해 물었다. 강해진이 당황한 듯, 슬픈 표정으로 한비수를 바라봤다. 과연 한비수의 출생의 비밀은 무엇인지, 이는 반환점을 둔 ‘오! 주인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이 모든 것은 4월 21일 수요일 밤 9시 20분 방송되는 MBC 수목미니시리즈 ‘오! 주인님’ 9회에서 공개된다.

MBC 수목미니시리즈 ‘오! 주인님’은 IQIYI International에서 방송과 동시에 전세계 서비스하며, 각국 별로 방송 직후 볼 수 있다. 해외 유저는 IQ.com를 접속하거나 애플 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IQIYI International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전순희/기자



가수 백지영이 포크계의 전설 장필순과 듀엣곡으로 호흡을 맞춘다. 소속사 트라이어스는 ‘백지영’이 25일 ‘장필순’과 함께 부른 신곡 ‘위월 파인드 더 데이’(We'll Find The Day)를 발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로 각 각 특유의 음색을 지닌 두 사람의 하

모니가 돋보이는 곡이라고 소속사는 소개했다.

백지영과 장필순이 듀엣곡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백지영은 과거 장필순과 함께 꼭 작업하고 싶다는 애정과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순희/기자



배우 이정은, 월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 체결!

- 現 소속사 대표와 9년 째 동행.. 의리 빛났다

배우 이정은이 월엔터테인먼트(대표 김계현)와 재계약을 체결,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현 소속사 대표와 9년 째 동행을 이어간다.

이정은과 전속계약을 맺은 월엔터테인먼트는 “오랜 시간 깊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동행해 온 이정은 배우와 재계약을 했다. 늘 연기에 진심을 다하며 매 작품마다 깊은 인상을 남기는 명품 연기자 이정은 배우와 계속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31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이정은 배우의 연기 스펙트럼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은은 지난 2018년 월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체결 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시작으로 ‘아는 와이프’, ‘눈이 부시게’, ‘타인은 지옥이다’, ‘동백꽃 필 무렵’, ‘한 번 다녀왔습니다’ 등 안방극장에서 폭 넓은 연기로 맹활약하는가 하면, 영화 ‘미쓰백’, ‘말모이’, ‘미성년’, ‘기생충’, ‘유경이네 고향집’, ‘내가 죽던 날’, ‘자산어보’ 등 스크린에서도 장르를 넘나드는 연기력으로 ‘믿고 보는 배우’로 등극, 다수의 작품에 참여하며 월엔터테인먼트와 두터운 인연을 쌓아왔다.

특히 2019년 이후 다수의 작품으



로 국내외 각종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12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대한민국 대표 연기와 배우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이정은은 지난주 첫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로스쿨’에서 판사 출신 민병 교수 ‘김은숙’으로 분해 부드럽지만 강단있는 면모로 안방극장을 다시금 사로잡고 있다.

최재은/기자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복수의 시작 예고편 공개

1980년 5월 이후 41년! 반성 없는 세상을 향한 그의 분노가 폭발한다.

오는 5월 13일 개봉을 확정된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가 국민배우 안성기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만날 수 있는 복수의 시작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는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오재근’(안성기)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성 없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이다.

공개된 ‘아들의 이름으로’ 복수의 시작 예고편은 반성 없는 자들을 향한 주인공 ‘재근’(안성기)의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는지”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로 시작한다.

이어 광주 무등산을 오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하던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통화 상대방이 이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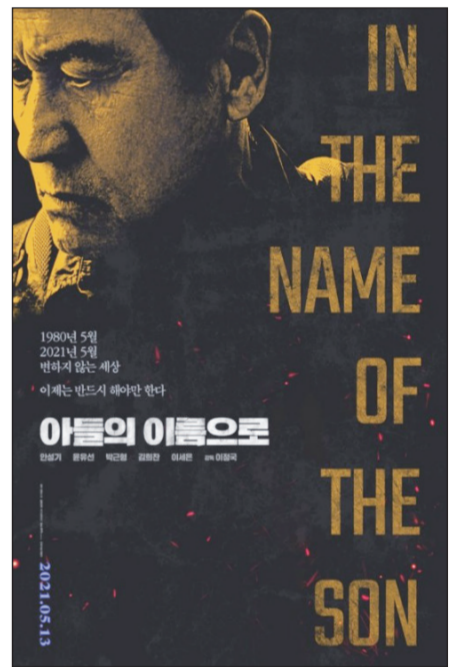
만하라며 그를 만류하자 “넌 양심도 없냐? 사람을 죽여 놓고!”라며 분노에 찬 모습을 보여 영화 속에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한다.

한편 ‘오재근’과 함께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책임자 ‘박기준’(박근형)은 “그때 일은 역사가 다 평가해 줄 거야”라며 반성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에 ‘재근’은 반성 없는 세상을 향한 복수를 시작한다. 국민배우 안성기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인다.

반성 없는 세상을 향한 한 남자의 분노가 담긴 복수의 시작 예고편을 공개한 ‘아들의 이름으로’는 오는 5월 13일 개봉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나빌레라’ 대한민국에 몰고 온 발레 붐! ‘발린이’ 증가 화제!

tvN ‘나빌레라’가 인생의 황혼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덕출 캐릭터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심어주며 발레 붐을 일으키고 있다.

tvN ‘나빌레라’(연출 한동화/극본 이은미/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더그레이트쇼)는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과 스물셋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채록’의 성장을 그린 사제듀오 청춘기록 드라마. 그런 가운데 ‘나빌레라’가 대한민국에 불어온 발레 붐에 이목이 집중된다.

극중 평생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았던 덕출(박인환 분)은 우연배달원 은퇴 후 남몰래 접어들었던, 발레리노로서 날아오르고 싶은 꿈을 꺼내 든다. 일흔 노인은 발레를 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편견을 깨고 청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으로 매회 시청자들의 응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무용수가 되기에 너무 늦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발레가 왜 하고 싶어요?”, “죽기 전에 나도 한 번은 날아오르고 싶어서”라는 극중 덕출과 채록(송강 분)의 대사처럼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덕출의 도전과 발린이(발레+어린이)로서 불리는 굵은 팍방울이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용기’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

이처럼 ‘나빌레라’가 덕출을 배우고 도전하는 노년이자 현재진행형 삶을 살아가고 성장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는 바, 이에 덕출의 발레 도전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도전하고 용기 낸 사람들이 많아져 관심을 모은다.

이를 입증하듯 자신이 직접 발레학원을 등록해 배움에 도전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와 발린이가 많아지고 직업,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아마추어 발레단에 지원하는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나아가 자신의 도전이 담긴 영상을 개인 SNS와 유튜브에 업로드해 공유하는 등 이와 같은 발린이 도전은 ‘나빌레라’가 전파한 영향력을 실감하게 한다.

이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나빌레라’ 속 덕출의 도전이 꿈을 향한 뜨거운 마음처럼 자신이 좋아하고, 이를 해내기 위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의 용기를 이끌어내며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tvN 월화드라마 ‘나빌레라’ 10회는 오늘(20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댄서 아이키, 에스팀과 전속계약 체결...크리에이터로서 새 출발 알렸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댄서 아이키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업 에스팀과 전속계약을 체결, 새 출발을 알렸다.

아이키는 지난 2019년 미국 NBC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 ‘월드 오브 댄스(World Of Dance)’ 시즌3에서 4위에 오르며 세계적으로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MBC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그룹 환불원정대의 타이틀곡 ‘돈트 터치 미(DON'T TOUCH ME)’의 안무를 맡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MBC ‘라디오스타’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및 라디오 출연은 물론, 각종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 등 대세 행보를 이어가며 크리에이터로서의 새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에스팀은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댄스로 모든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며 빛나는 존재감을 발산하는 그녀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 한계 없는 그녀의 개성과 재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스팀은 모델, 배우, 방송인, 엔터테이너를 비롯 크리에이터 등 패션과 뷰티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각광받는 아티스트를 꾸준히 영입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순희/기자



어깨 무거워진 토론토 에이스 류현진... '3연패를 막아라'

'3연패를 막아라.' 시즌 4번째 등판을 앞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34)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토론토는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1승3패에 그쳤다. 토론토는 19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코프먼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메이저리그 원정 경기에서 2안타에 그치는 빈공 속 0-2로 졌다. 토론토 선발투수 로비 레이는 5이닝 동안 안타 4개와 볼넷 6개를 내줬지만 뛰어난 위기관리로 무실점으로 막는 등 나름 몫을 해냈다. 팽팽하던 균형은 7회 깨졌다. 토론토 3번째 투수 T.J. 조이크는 7회말 구원 등판해 카를로스 산타나에게 안타를 맞더니 살바도르 페레즈에게 2점 홈런을 허용했다. 이것이 희비를 갈랐다.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1승3패에 그친 토론토는 7승9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공동 3위에 머물렀다. 지구 최하위는 5연패 늪에 빠진 뉴욕 양키스(5승10패). 토론토는 하루 휴식을 취하고 21

일과 22일 보스턴 레드삭스와 원정 2연전을 갖는다. 류현진은 21일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당초 19일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었던 류현진은 '비' 때문에 등판이 어려울 후로 연기됐다. 토론토는 지난 17일 캔자스시티전이 우천 취소되면서 18일 더블헤더를 치렀다. 찰리 몬토요 감독은 "이틀 연속 불펜 개입을 펼치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며 류현진의 등판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류현진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지구 선두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토론토의 3연패를 저지해야 한다. 류현진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그는 지난 14일 양키스전에서 6%이닝 7탈삼진 1실점(비자책)의 완벽한 투구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시즌 개막 후 승운이 따르지 않으나 기복 없이 평균자책점 1.89로 잔물투구를 펼치고 있다. 정교한 제구, 예리한 커터와 체인지업을 앞세워 상대 타선을 압도했다.

전순희기자



목포, 천안과의 '호두 더비' 서 2-1 승... 선두권 진입

FC목포가 천안시축구단을 꺾으며 선두권에 다가섰다. 목표는 17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2021 K3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천안을 2-1로 이겼다. 경기 전부터 '천안 호두과자 쿠키 클래스'라는 콘셉트를 경기 홍보에 내세우며 기선제압에 나선 목포다. 이번 승리로 목포는 승점 3점을 추가하며 2위 천안과 승점 10점 동률을 이뤘다. 경기 전의 신경전만큼이나 극적인 승부가 펼쳐졌다. 목포는 전반 32분 김유성의 골로 앞서갔으나 4분 만에 천안 조주영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1-1의 팽팽한 균형은 한참 간 이어졌고, 결승골은 후반 추가시간 2분에 터졌다. 박승렬이 아크 근처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1위 자리에는 화성FC가 올랐다. 화성은 18일 열린 홈경기에서 팽택 시타던FC에 1-0 승리를 거뒀다. 조동건의 결승골을 넣었다. 조동건의

리그 6번째 골이다. 개인득점 1위 조동건의 활약에 힘입어 화성은 승점 11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K4리그에서는 포천시민축구단의 연승행진이 이어졌다. 포천은 17일 전주중합운동장에서 열린 전주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두며 5연승을 달렸다. 박철우가 두골, 김종민과 인준연이 한 골씩을 기록했다. 전주는 5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김동일기자



기성용 없으니 잘 보인다...FC서울의 '근본적 문제점'



FC 서울이 추락하고 있다. 서울은 지난 17일 K리그1(1부리그) 10라운드 대구 FC와 경기에서 0-1로 패배했다. 서울은 무기력으로 일관하다 전반 28분 대구 공격수 에드가에 선제 결승골을 얻어맞았다. 이번 패배로 리그 4연패를 당했다. FA컵 3라운드에서 K리그2(2부리그) 서울 이랜드 FC에 무너진 것을 합치면 5연패다. 상위권은 벽찬 자리였다. 이제 서울은 중위권에서 더 내려가지 않기 위한 전략을 세우야 한다. 시즌 초반 리그 2위까지 오르는 등 돌풍을 일으켰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그야말로 반짝 2위였다. 시즌 초반 상승세를 이끌던 기성용의 부상 이탈, 여기에 박주영, 고요한 등 베테랑들도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빠져나갔다. 박진섭 서울 감독은 이들의 이탈로 인해 팀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기성용 부상이 크다. 시즌 초반 서울의 반짝 효과는 사실상 '기성용 효과'였다. 기성용이 특집을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 서울은 3연승을 달렸다. 승리를 책임져줘야 할 마무리를 기성용이 해준 것이다. 기성용은 3골로 나상호와 함께 팀 내 득점 공동 1위다.

이런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되기 힘들다. 기성용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린다고 해도 포지션상 한계가 있다. 그는 중앙 미드필더다. 기성용이 부상에서 돌아온다고 해도 득점을 책임져줄 거라는 희망은 버려야 한다. 이런 역할은 최전방 공격수가 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에는 최전방 공격수가 없다. 이것이 서울의 '근본적 문제점'이다. 기성용 효과가 잠시 덮여줬을 뿐이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전성기에서 내려온 박주영에게 모든 부담감을 안길 수 없다. 젊은 조영욱 역시 큰 역할을 맡길 수 없다. 서울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외인 공격수였다. 하지만 서울 구단은 이해법을 외면했다.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외인 공격수 영입을 하지 않았다. 고액 연봉자 알렉산드르 페시치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기대감이 사라졌다. 결국은 없었다. 무게감 있는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서울은 상승 동력을 찾지 못했고, 추락을 거듭했다. 최우수 감독 사임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은 강등 위기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잔류했다. 지난 시즌의 아픔을 잊지 않은 서울은 올 시즌 앞두고 선수 영입에 공을 들였다. 국가대표 나상호, 검증된 외인 팔로세비치 등 영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

분, 지난 시즌부터 서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지적한 부분을 올 시즌에도 외면한 점이다. 서울은 또 다시 외인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았다. 나상호, 팔로세비치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일까. 그들 역시 좋은 공격수였다. 하지만 최전방 공격수는 아니다. 나상호는 원어, 팔로세비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다. 지금 서울에 가장 필요한 포지션은 최전방 공격수다. 박진섭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를 나상호 원톱, 팔로세비치 원톱 등 전술 변화로 극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박진섭 감독이 돌풍의 광주 FC를 이끌던 시절, 그의 전술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최전방 외인 공격수 펠리페와 함께 했을 때였다. 기성용이 없으니 '근본적 문제점'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박진섭 감독은 대구전 패배 후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선수들이 득점을 해줘야 하는 건 맞지만, 전문적인 골잡이가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당장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부에서 전술이나 포지션 변화를 고려해봐야 한다. 해결책을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2021 KLPGA투어 루키 시리즈 14편] 마지막 정규투어 입성 티켓의 주인공, 김희지

KLPGA투어 2021시즌이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한다. 지난주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을 통해 정규투어의 분위기를 경험한 신인들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에 기대가 모이는 가운데, [2021 KLPGA투어 루키 시리즈]에서는 열정과 패기로 뽐낼 뭉친 신인들을 소개한다. 김희지(20,비씨카드)는 여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 오랜 기간 태권도와 발레를 했다. 13살에 우연히 아버지를 따라간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김희지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조금은 늦은 나이에 골프를 시작했지만, 골프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고 KLPGA 입회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렸다. 아마추어 시절 국가상비군과 국가대표 경력을 없었지만, 필리핀에서 열린 '필리핀 아마추어 오픈 챔피언십'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해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등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닦아온 은둔의 기대주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김희지는 지난해 5월 열린 'KLPGA 2020 제1차 준회원 선발전'을 통해 KLPGA 준회원으로 입회하는 데 성공했다. 준회원 입회 이후 'KLPGA 2020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1차 대회(1-4차전)에 출전해 1차전 준우승, 4차전 우승을 차지한 김희지는 그해 6월에 정회원으로 승격되는 기쁨을 맛봤다. 드림투어로 무대를 옮긴 김희지는 새로운 무대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는 것처럼 보였지만, 7월 열린 'KLPGA 2020 군산CC 드림투어 10차전'에서 5위를 기록하던 이후 8월에 열린 'KLPGA 2020 WEST OCEAN CC 드림투어 12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도했다. 곧이어 열린 'KLPGA 2020 한세-휘닉스CC 드림투어 13차전'에서도 4위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김희지는 상금순위 13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지만, 이후 대회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해 상금순위는 19위까지 밀려났다. 정규투어 시드권이 걸린 20위 안에 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즌을 보내는 김희지에게 남은 대회는 단 하나, 'KLPGA 드림투어 왕중왕전' 뿐이었다.

결연한 의지로 마지막 대회에 출전한 김희지는 1라운드 첫 홀에서 더블 보기를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이후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오버파 73타 공동 18위로 2라운드를 맞았다. 2라운드에서 김희지는 신들린 샷과 퍼트를 앞세워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6개를 낚아채는 데 성공하면서 중간합계 4언더파 140타 공동 선두로 단숨에 뛰어올라 시즌 2승과 함께 정규투어 입성 티켓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냈다. 하지만 최종라운드에서 김희지는 긴장감과 부담감 탓에 2라운드까지 쌓았던 스코어를 모두 잃고 최종합계 1오버파 217타(73-67-77) 공동 11위로 경기를 마쳤다. 시즌 2승을 눈앞에서 놓치며 아쉬움의 눈물을 삼켜야 했지만, 김희지는 2020시즌 드림투어 최종 상금순위 20위에 자리하면서 정규투어 입성 티켓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는 데에는 성공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김희지는 "1, 2라운드에서는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경험이 없어서인지 선두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이 생각보다 컸다. 더 많이 준비했는데도 긴장감이 없어지지 않아서 내 플레이가 안 됐고, 아쉬운 실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금순위 20위 안에 못 들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의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희지는 "스코어카드를 제출하고, 상금순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친구인 (서)어진이 상금순위 20위라고 말해주면서 울더라.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나도 아버지와 함께 울었다. 경기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목표로 했던 정규투어 입성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쁨이 더 컸던 것 같다."라고 말하며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는 듯했다. 김희지는 겨울 동안 대전과 용인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정규투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샷감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고, 체력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다. 김희지는 "사실 근력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 웨이트를 하면서 파워를 늘렸다. 덕분에 힘이 많이 생겨서 지난해보다 거리가 조금 더 늘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추운 겨울에도 훈련에 매진한 김희지의 노력은 정규투어 데뷔 첫 대회인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부터 빛을 발했다. 초속 7m/s 이상의 강풍과 더불어 딱딱한 그린 때문에 경험 많고 노련한 선수들도 1라운드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김희지는 묵묵히 자신의 플레이를 이어 나갔다. 1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 14위라는 준수한 성적

최만식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